

안전 불확실·첩보 부족 상황서도 거침없이 침투한다

육군특수전학교, 해상척후조 훈련
수영·잠수·침투 자산 이용 기술 숙달
모든 과정 마치면 '컴뱃 다이버 패치'

육군특수전학교(특전교)는 25일 “지난 1일부터 강원도 강릉 해상훈련장에서 강도 높은 ‘해상척후조 52차 교육’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해상척후조는 적 해안 경계로 안전한 침투가 불확실하거나 해상침투 지역 첩보가 미약할 경우 먼저 투입되는 특수임무조다. 교육은 1년에 한 번만 열리며, 교육 전 시행하는 맨몸·오리발 수영, 표면 잠수, 잠영·입영, 중성부력 유지 등 입교 자격평가 중 하나라도 탈락하면 곧바로 퇴교다.

다음 달 2일까지 열리는 이번 교육은 전·평시 해상임무 수행이 가능한 정예 장병 육성에 초점을 맞췄다.

훈련은 △해상 장거리 수영 침투 능력 구비 △잠수 장비를 활용한 수중 침투 능력 구비 △다양한 침투 자산을 통한 전술적 침투 기술 숙달 △악조건 극복하 팀 단위 단계별 해상침투 절차·기술 숙달에 중점을 뒀다.

교육 1~3주 차에는 수영·잠수 기술 숙달 위주로 교육을 한다. 바다에서 3.6km 맨몸 수영과 7.2km 오리발 수영을 통해 수영 기술



육군특수전학교 해상척후조 교육생들이 24일 강원도 강릉시 해상훈련장에서 체력 훈련 및 스쿠버 체조를 하고 있다.

부대 제공

을 숙달한다. 이어 개방회로와 폐쇄회로를 활용한 잠수 절차와 수중 방향 유지 훈련을 실시한다. 4주 차에는 각종 침투 자산을 통한 침투 기술을 숙달한다. 이날 강릉 장현저수지에서는 CH-47 시누크 헬기를 활용해 3m 상공에서 고무보트를 투하하고 인원이

이탈하는 하드 덕 훈련을 진행했다. 5주 차에는 주·야 전투 모형 훈련을 통해 그동안 배운 해상침투 절차를 종합적으로 반복한다.

모든 과정을 마친 교육생들은 내달 2일 수료와 동시에 컴뱃 다이버(Combat Diver) 패치를 부착할 수 있는 영예를 안는다.

김대성(상사) 특전교 해상교관은 “훈련을 이수한 교육생들은 강한 정신력과 체력, 숙달된 해상 침투기술을 바탕으로 하늘·땅·바다에서 전전후 임무 수행이 가능한 최정예 특전대원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원 기자

해병대·경찰, 무더위 속 시원하게 '일발백중'

대테러 저격훈련 통해 장비·전술 공유
출동 절차·임무수행 방법 교류 중점

해병대 특수수색대대가 경찰특공대와 사격훈련을 전개하며 대테러 작전 능력을 배양했다.

대대는 지난 23일부터 사흘간 경북 포항시 일대 사격훈련장에서 군·경 합동 대테러 저격훈련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군·경 병력 30여 명이 참가한 이번 훈련은 특수수색대대와 경찰특공대의 사격술 노하우 공유, 대테러 저격수 출동 절차 및 임무

수행 방법 교류에 중점을 두고 이뤄졌다.

훈련은 첫날 안전교육을 시작으로 사거리별(100~1000m) 사격, 응용사격, 상황조성하 사격, 권총 및 저격소총 혼합사격 등 과제별로 진행됐다.

특히 군·경 저격팀은 각자 운용하는 장비와 전술을 공유하고, 사후강평과 평가를 통해 저격수 운용 및 사격 절차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대테러작전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대대는 무더위라는 악조건에서 진행된 이번 훈련을 통해 흔들림 없이 목표물을 꿰뚫는 사격능력을 배양하고, 전술전기를 연



해병대 특수수색대대 장병과 경찰특공대 대원이 경북 포항시 해병대2기동사격훈련장에서 이뤄진 '군·경 합동 대테러 저격훈련' 중 정밀 사격을 하고 있다.

부대 제공

마해 임무수행 능력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최광호(대위) 특수수색중대장은 “경찰특공대와 훈련하며 합동성을 강화할 수 있

었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꾸준한 교류 활동을 통해 임무수행 능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원준 기자

산불 나면 신속히...폭발물 시설 안전 사수

해군3함대, 관·군 합동 화재진압훈련

해군3함대는 25일 산불 예방 및 폭발물 시설 화재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관·군 합동 화재진압훈련을 실시했다.

훈련에는 3함대 무기지원대대·화생방지원대, 영암소방서, 서부지방산림청 등에서 50여 명이 참가했다. 소방차 3대, 산악용 소방차 2대 등 장비도 함께 투입됐다.

훈련은 CCTV를 통해 탄약고 인근에서 산불이 발생한 상황을 파악하며 시작됐다. 3함대는 즉시 병력을 비상 소집하고, 관계 기관에 산불 발생 사실을 전파했다. 3함대

자위소방대는 화재 현장으로 이동, 산악용 소방차와 등짐 펌프 등을 이용해 초동조치에 나섰다.

뒤이어 화생방지원대와 영암소방서, 서부지방산림청 대원들도 현장에 도착해 화재 진압에 힘을 보탰다. 이들은 마지막까지 잔불을 처리하고 추가 화재 발생 여부를 확인했다.

김수범(중령) 무기지원대대장은 “훈련을 통해 각자 주어진 임무에 따라 신속한 화재 진압에 필요한 대응 절차를 숙달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도 점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원준 기자

AI 시대 발맞춰...교육체계 변화 모색

공군교육사, 보수교육발전 대토론회

‘정예 공군 양성의 요람’ 공군교육사령부(교육사)가 관계관들과 인공지능(AI) 시대에 맞춘 미래 교육책을 모색했다. 교육사는 25일 사령부 별관강당에서 ‘보수교육발전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교육사에서 운영 중인 특기 보수교육 과정 중 중·고급 교육과정 혁신을 목적으로 열린 토론회에는 국방부와 공군본부, 교육사 관계관들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급격한 사회 변화에 따라 현 보수과정 교육체계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AI 기술

발전, 초연결·지능 등 기술 발전에 발맞춰 소집교육 중심 교육체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토론회에서는 국내외 학계와 민간기업, 미군이 활용하고 있는 ‘에듀테크(EduTech)’ 소개와 공군 내 적용, 비대면 원격 학습 전환 시 요구되는 교관·교육생 역할 및 교육과정, AI 기반 교육생 개인별 맞춤 콘텐츠 제작 방안 등이 논의됐다.

오현철(중령) 교육사 학교교육처장은 “토론회로 현 교육체계를 분석하고 공군 교육 개선·발전을 위해 소통할 수 있었다”며 “미래 공군 교육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해령 기자